

간호행정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 분석(2010~2012년)

장금성¹ · 김복남² · 김윤민³ · 김정숙⁴ · 정석희⁵

전남대학교 간호대학¹,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²,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³,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⁴, 전북대학교 간호대학⁵

Analysis of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 (2010~2012)

Jang, Keum Seong¹ · Kim, Bok Nam² · Kim, Yun Min³ · Kim, Jung Sook⁴ · Jeong, Seok Hee⁵

¹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²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³Department of Nursing, Gwangju Health University

⁴Department of Nursing, Korean Bible University

⁵College of Nurs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ajor trends in research studie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rom 2010 to 2012. **Methods:** A review using analysis criteria developed by researchers was done of 132 studies published between 2010 and 2012. Research design, participants, research domain, and keywords were analyzed from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Results:** Job satisfaction, stress, organizational commitment, safety, turnover, nursing education, and performance were found to be major keywords. Of the research in the Journal, quantitative methods were used in 93.2% of studies. The major setting and participants were hospitals (58.2%) and nurses (65.5%) respectively. Prevalent analysis methods used were t-test, ANOVA, correlation, regression, chi-square, AMOS, and factor analysis. Major domains in the articles were: controlling, directing, staffing,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and professionalism & legal principles.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 trends in nursing administration were identified, but there is a need to include more of the following topics in future research: new concepts in nursing policy, enhanced deliberations of IRB, rationalization of the effects in sample size calculations, theoretical development of planning and organizing, and development of interventions for management support of the nursing management process.

Key Words: Nursing administration, Nursing research, Review, Research trend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행정학회는 한국간호과학회의 7개 분과학회의 하나로

써, 학회 관련학술지인 간호행정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를 1995년 발간을 시작으로 18년 동안 19권, 740여 편의 간호관리 분야의 논문을 발행해 왔다. 간호행정학회지는 2005년에는 학진등재 후보지로, 2007년에는 학진등재지로, 2013년에는 세계적인 간호학

주요어: 간호행정, 간호연구, 논문분석, 연구동향

Corresponding author: Kim, Bok Na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15 Youngsong-ro, Buk-gu, Daegu 702-722, Korea.

Tel: +82-10-8882-6429, Fax: +82-53-320-1470, E-mail: bnkim2010@naver.com

- 본 연구는 한국간호행정학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 research grant from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투고일: 2013년 11월 7일 / **수정일:** 2013년 12월 3일 /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4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술 Database인 CINAHL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매년 2권씩 발행해 오다가 2002년부터 4권으로 증가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특별호를 발간하여 간호관리 연구영역을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게재논문의 full text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및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함으로써 논문의 접근성을 높였다. 2013년에는 표절방지를 위한 Crosscheck 시스템 적용하였으며, 9월호부터는 국립도서관으로부터 e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을 부여받았다. 추후 2014년 3월호부터는 참고문헌 작성법이 APA (American Phil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형식에서 벤쿠버 형식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이렇듯 정보화 사회변화에 맞추어 질적 양적 변화를 선도함으로써 간호관리학 및 실무 발전을 위한 전문간호지식 공유와 이론적 지식창출을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학문의 발달은 연구를 통한 지식체 축적으로 이론이 생성되며 실무적용을 통한 연구로 회환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Suh et al., 2007). 간호학의 발전과 학문으로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간호현상 연구뿐만 아니라 여러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는 작업이 필수이며, 특정분야나 연구 주제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시행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 연구를 피하고 선행연구로부터 더욱 정련화 되고 확대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Lee et al., 1992). 지속적인 의료 환경의 변화와 간호실무 발전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어지고 간호조직의 관리를 위한 연구 주제 또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간호관리학문이 실무에 기여하는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환경을 반영한 진보적인 연구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연구의 경향과 관심영역을 분석하여 추후 연구의 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간호 관련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여(Bang et al., 2008; Choi et al., 2000; Jeong, Ahn, & Cho, 2005; Kim et al., 2002; Kim et al., 2010; Lee et al., 2007; Suh et al., 2007; Shin et al., 2010) 간호연구 활동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되고 있다(Kim et al., 2010).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995~2000년까지의 간호행정학회지를 분석한 연구(Koh & Ha, 2001), 2002~2006년 학회지의 주요어를 분석한 연구(Seomun, Koh, & Kim, 2007)와 2007~2009년 학회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0)가 있었다. 이러한 동향분석을 통하여 특히 간호행정, 간호정보학 및 간호윤리 등 간호관리학문과 관련된 논문들이 최근 의료의 변화, 정보학

의 발달, 의료윤리의 강조, 전문직으로서의 도약, 간호창업과 마케팅 등 새로운 영역의 연구 활동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Kim et al., 2010). 간호 관련 학술지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는 논문의 주요어 분석(Jeong et al., 2005), 간호학 지식분류 유형에 따른 분석(Jang, 2005), 통계기법 분석(Kang, 2002), 질적 양적 연구에 따른 전반적인 분석(Shin et al., 2010)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국외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SSCI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등재지 논문들의 국제적인 경향, 연구방법론과 주제 중심의 분석, Impact Factor가 높은 상위 10위의 간호 학술지를 대상으로 방법론과 근거의 유형 및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hin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32편을 대상으로 논문의 전반적인 특성, 간호관리학의 연구영역과 주요 연구개념 등을 분석하여, 간호관리학 분야의 연구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관리학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간호관리학 연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2010년 16권 1호에서 2012년 18권 4호까지 최근 3년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 제목, 출판정보, 주요어, 연구설계, 기관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승인 여부, 표본추출기준 및 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자, 연구 세팅, 도구분석단위, 간호관리 영역별 연구변수를 분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간호행정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6권 1호부터 2012년 18권 4호까지 최근 3년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총 132편의 논문을 간호행정학회지 게재논문 연구동향 분석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3년도 8월에 실시되었으며, 논문 수집을 위하여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총 12권의 간호행정학회지 책자와 간호행정학회 홈페이지(<http://www.kanad.or.kr>)에서 제공하는 학회지 원본제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총 132편의 논문 원본을 확보하여 논문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선행연구(Kim et al., 2010; Koh & Ha, 2001)를 기반으로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분석에 적합하도록 본 연구진이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의 주요 내용은 논문 저자, 제목, 출판정보, 주요어, 연구설계, IRB 승인 여부, 표본추출기준 및 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자, 연구 세팅, 도구분석단위, 간호관리 영역별 연구변수 등 총 12개의 분석기준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분석의 오류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분석과 토론과정을 거친 후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 함께 모여 공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자료분석 실시 전 몇 개의 논문을 샘플로 선정하여 연구자가 함께 분석틀에 의해 분석해봄으로써 논문의 분석틀 및 세부 분석기준에 대한 분석자간 이해를 일치시켰으며, 이를 통해 분석자간 편차를 최소화하였다. 그 후 분석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 각자가 분석틀 중 몇 개의 영역을 맡아 전체 13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의견일치를 보일 때까지 함께 논의하여 의사결정을 한 후 자료에 포함시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자료분석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연구자 2인이 다시 모

여 전체 132편의 논문 전체에 대하여 분석기준에 따른 분류 적절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인의 연구자간 분석의 일치도를 충족시켰다. 모든 자료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과 엑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게재논문 현황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Table 1). 게재된 논문 총수는 132편이었으며, 2010년에는 1호 8편, 2호 7편, 3호 14편, 4호 15편으로 총 44편, 2011년에는 1호 12편, 2호 10편, 3호 10편, 4호 16편으로 총 48편, 2012년에는 1호 11편, 2호 11편, 3호 7편, 4호 11편으로 총 40편이었다. 게재논문의 윤리적 측면에서 IRB 승인을 얻은 논문은 24편(18.2%)으로 나타났다(Table 1). 또한 표본 수 산출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66편(50%)이었다.

2. 주요어 분석

주요어 분석 결과, 132편의 논문에서 저자들이 복수 선택한 주요어 489개 중에서 「간호사」가 44건으로 전체 논문의 33.3%에서 주요어로 선택됨으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무만족」이 18건(13.6%), 「스트레스」16건(12.1%), 「조직몰입」13건(9.8%), 「안전」10건(7.6%), 「간호교육」9건(6.8%), 「이직」9건(6.8%), 「경력관리」7건(5.3%), 「성과」7건(5.3%), 「소진」7건(5.3%), 「리더십」7건(5.3%), 「병원」7건(5.3%), 「역할」6건(4.5%), 「간호」5건(3.8%)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중 「안전」의 경우 환자안전, 안전문화, 환자안전문화 등이

Table 1. Overall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N=13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ategories	n (%)
Published article	2010 (year)	Volume 16 (No. 1~4)	44 (33.3)
	2011 (year)	Volume 17 (No. 1~4)	48 (36.4)
	2012 (year)	Volume 18 (No. 1~4)	40 (30.3)
Ethical consideration	IRB	Approved	24 (18.2)
		Not approved	108 (81.8)
Criteria for sample size		Yes	66 (50.0)
		No	48 (36.4)
		Not applicable	18 (13.6)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포함되었으며, 주요어 「스트레스」의 경우 직무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역할 스트레스 등이 포함되었다. 각 년도별 다빈도 주요어로는 2010년에는 「간호사」, 「직무만족」, 「조직몰입」, 「경력관리」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간호사」, 「스트레스」, 「직무만족」, 「간호교육」의 순이었으며, 2012년에는 「간호사」, 「직무만족」, 「조직몰입」, 「안전」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연구설계

연구설계 분석결과, 양적 연구 123편(93.2%), 질적 연구 9편(6.8%)으로 양적 연구가 많았으며, 양적 연구 중 실험연구 11편(8.3%), 비실험연구 112편(84.9%)이었다. 비실험연구에는 서술연구 46편(34.7%), 상관관계연구 50편(37.8%), 방법론적 연구 8편(6.1%), 모형구축 연구 6편(4.6%), 문헌분석 연구 1편(0.8%), 델파이 연구 1편(0.8%)이었다. 질적 연구는 현상학연구 2편(1.5%), 근거이론 연구 1편(0.8%), 포커스그룹 연구 3편(2.3%), 역사적 연구 2편(1.5%), 주제 분석 1편(0.8%)이었다(Table 3).

4. 연구대상자 및 연구 셋팅

연구대상자는 복수응답으로 총 136건이었다. 그 중 간호사가 89건(6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생 8건(5.9%), 환자 16건(11.8%), 건강한 성인 1건(0.7%)이었다. 그 외에 문헌이나 연구보고서 6건(4.4%), 교과과정 1건(0.7%)이었으며 병원, 의사,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15건(11%)이었다.

연구셋팅은 복수응답으로 133건이었다. 이중 병원이 104건(78.2%)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교육기관 12건(9.0%), 지역사회 10건(7.5%), 간호 관련기관 3건(2.3%), 기타 4건(3.0%)이었다(Table 3).

5. 표본표출방법

표본추출 방법은 편의표본추출이 127건(96.2%)으로 가장 많았으며, 층화무작위 표본추출 2건(1.5%), 단순무작위 표본추출 1건(0.8%) 순이었으며 해당 없는 경우가 2건(1.5%)이었다. 자료의 분석단위 기준은 개인이 119건(90.1%)로 가장 많

Table 2. Key Words Analysis

(N=489)

Rank	Key Words	Year			Total
		2010 n	2011 n	2012 n	n (%)*
1	Nurse	12	13	19	44 (33.3)
2	Job satisfaction	7	5	6	18 (13.6)
3	Stress	4	9	3	16 (12.1)
4	Organizational commitment	6	3	4	13 (9.8)
5	Safety	3	3	4	10 (7.6)
6	Turnover	2	4	3	9 (6.8)
6	Nursing education	3	4	2	9 (6.8)
8	Hospital	2	4	1	7 (5.3)
8	Performance	2	3	2	7 (5.3)
8	Exhaustion	1	3	3	7 (5.3)
8	Career management	5	1	1	7 (5.3)
8	Leadership	4	2	1	7 (5.3)
13	Role	1	2	3	6 (4.5)
14	Nursing	2	2	1	5 (3.8)
15	Others	111	115	98	324
	Total	165	173	151	489

*n/132 papers.

았으며 조직 7건(5.3%), 집단 1건(0.8%), 기타 5건(3.8%)이었다(Table 3).

6.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에 대한 분석은 복수 응답 처리하였으며 그 결과 총 567건이다. 평균값 및 표준편차와 빈도를 파악하는 기술적 분석방법이 126건(22.2%)이었다. 독립표본 t-test 75건(13.2%), Mann-whitney 비모수 검정은 2건(0.3%)이었다, 대응표본 t-test 4건(0.7%), Wilcoxon's 비모수 검정은 3건

(0.5%)이었다. 일원분산분석 72건(12.7%), Kruskal Wallis 비모수 검정 4건(0.7%), 다중비교(post hoc) 61건(10.7%)이었다. Repeated Measure ANOVA는 3건(0.5%) ANCOVA는 8건(1.4%)이었다. 상관분석은 총 75건(13.2%)이었으며, 그 중 Pearson's 상관분석 68건(12%), Spearman's 상관분석 5건(0.9%), Canonical 상관분석 2건(0.3%) 순이었다. 회귀분석은 60건(10.6%)이었으며, 그 중 단순회귀분석 2건(0.3%), 다중회귀분석 54건(9.5%), Logistic 회귀분석 4건(0.7%)이었다. 그리고 요인분석 6건(1%), AMOS 8건(1.4%), 군집분석 3건(0.5%)이었다. 또한 교차분석은 20건(3.5%), Fisher's

Table 3. Characteristics of Published Articles (Multiple Choice)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s	Categories	n (%)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study	11 (8.3)
		Descriptive study	46 (34.7)
		Correlation study	50 (37.8)
		Tool development study	8 (6.1)
		Model building study	6 (4.6)
		Article analysis study	1 (0.8)
		Delphi technique	1 (0.8)
	Subtotal	123 (93.2)	
	Qualitative research	Phenomenology study	2 (1.5)
		Grounded theory study	1 (0.8)
		Focus group study	3 (2.3)
		Historical study	2 (1.5)
		Concept analysis	1 (0.8)
		Subtotal	9 (6.8)
Research setting*		Hospital	104 (78.8)
	Nursing education organization	12 (9.1)	
	Health care community	10 (7.6)	
	Institutions	3 (2.3)	
	Others	4 (3.0)	
	Total	133 (100)	
Research subjects/participants*	Nurse	89 (65.5)	
	Nursing students	8 (5.9)	
	Patients	16 (11.8)	
	Healthy adults	1 (0.7)	
	Literature/paper	6 (4.4)	
	Curriculum	1 (0.7)	
	Hospitals, doctors, medical technicians, others	15 (11.0)	
	Total	136 (100)	
Sampling	Simple random sampling	1 (0.8)	
	Stratified sampling	2 (1.5)	
	Convenience sampling	127 (96.2)	
	Not applicable	2 (1.5)	
	Total	132 (100)	
Unit of analysis	Individual	119 (90.1)	
	Organization	7 (5.3)	
	Group	1 (0.8)	
	Others	5 (3.8)	
	Total	132 (100)	

*Multiple choice.

exact 비모수 검정은 2건(0.3%)이었다. 그 밖에 내용분석 8건(1.4%), 근거이론 분석 1건(0.2%), 현상학적 분석 2건(0.3%),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 검정 8건(1.4%), 정규성 검정 7건(1.2%), 기타 9건(1.6%)로 나타났다 (Table 4).

7. 간호관리 영역별 주요연구변수 분류

주요연구변수의 간호관리영역의 분석을 위해 Koh와 Ha (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개념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틀은 Marriner-Tomey (2000)가 제시한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통제의 5단계를 주축으로 하였으며, 그 외 간호단위와 정보, 마케팅, 법으로 구성되었다. 간호관리 영역에 해당되는 주요연구변수 345개의 연구개념별 간호관리영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통제영역이 101건(29.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지휘영역이 78건(22.6%), 인사관리영역 71건(20.6%), 간호관리교육 관련 27건(7.8%), 전문직과 법적의무 관련 16건(4.6%), 기획영역 14건(4.0%), 조직영역 13건(3.8%), 간호단위관리 관련 13건(3.8%), 마케팅 관련 5건(1.5%), 간호관리연구 2건(0.6%), 기타 5건(1.4%)의 순서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 질통제가 52건(15.1%), 스트레스 관리 51건(14.8%), 생산성 49건(14.2%), 인력개발관리 45건(13.0%)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전체 117건(34.1%)중 통제영역이 35건(30.0%)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지휘영역이 27건(21.5%), 인사관리영역 22건(18.8%), 조직영역 6건(5.1%), 기획영역 6건(5.1%), 간호단위관리 관련 6건(5.1%), 간호관리교육 관련 5건(4.3%), 전문직과 법적의무 관련 5건(4.3%), 마케팅 관련 1건(0.9%), 간호관리연구 1건(0.9%), 기타 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 생산성이 22건(18.8%), 스트레스 관리 16건(13.6%), 인력개발관리 14건(12.0%), 질통제 13건(11.1%)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117건(34.1%)중 통제영역이 31건(26.6%)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지휘영역이 26건(22.3%), 인사관리영역 22건(18.8%), 간호관리교육 관련 15건(12.8%), 기획영역 7건(6.0%), 조직영역 4건(3.4%), 전문직과 법적의무 관련 4건(3.4%), 마케팅 관련 2건(0.6%), 기타 2 (1.7%)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 질통제가 19건(16.2%), 스트레스 관리 18건(15.4%), 생산성 12건(10.3%), 인력개발관리 12건(10.3%)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111건(32.3%)중 통제영역 35건(31.5%)로 가

Table 4. Data Analysis Method for the Published Articles (N=56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Descriptive analysis	Mean, SD, %	126 (22.2)
t-test	2 sample t-test Mann-Whitney Paired t-test Wilcoxon's	75 (13.2) 2 (0.3) 4 (0.7) 3 (0.5)
ANOVA	One-way ANOVA Kruskal Wallis Post hoc Repeated measure ANOVA ANCOVA	72 (12.7) 4 (0.7) 61 (10.7) 3 (0.5) 8 (1.4)
Correlation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Spearman correlation canonical correlation	68 (12.0) 5 (0.9) 2 (0.3)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2 (0.4) 54 (9.5) 4 (0.7)
Factor analysis		6 (1.1)
AMOS		8 (1.4)
Cluster analysis		3 (0.5)
Chi-square Fisher's exact test		20 (3.5) 2 (0.3)
Content analysis Grounded theory analysis Phenomenological analysis		8 (1.4) 1 (0.2) 2 (0.3)
CVI (Content Validity Index)* Normality test Others		8 (1.4) 7 (1.2) 9 (1.6)
Total		567 (100.0)

ANOVA=analysis of variance; ANCOVA=Analysis of covariance.
*Multiple choice.

장 많이 나타났으며, 인사관리영역 27건(24.3%), 지휘영역 25건(22.5%), 전문직과 법적의무 관련 7건(6.3%), 간호관리교육 관련 7건(6.3%), 조직영역 3건(2.7%), 간호단위관리 관련 3건(2.7%), 마케팅 관련 2건(1.8%), 기획영역 1건(0.9%), 간호관리연구 1건(0.9%)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 질통제가 20건(18%), 인력개발관리 19건(17.1%), 스트레스 관리 17건(15.3%), 생산성 15건(13.5%)로 나타났다.

논 의

간호행정학회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게재된 총 132편

Table 5. Key Concepts of the Research Domains in Nursing Management

(N=345)

Research domains	Categories	2010		2011		2012		Total	
		n (%)	n (%)	n (%)	n (%)	n (%)	n (%)	n (%)	n (%)
Professionalism & legal principles	Nursing professional values	5 (4.3)	5 (4.3)	2 (1.7)	4 (3.4)	6 (5.4)	7 (6.3)	13 (3.7)	16 (4.6)
	Professional self-concept	-	-	1 (0.9)	-	1 (0.9)	-	2 (0.6)	-
	Legal liability	-	-	1 (0.9)	-	-	-	1 (0.3)	-
Planning	Decision making	1 (0.9)	6 (5.1)	3 (2.6)	7 (6.0)	-	1 (0.9)	4 (1.1)	14 (4.0)
	Financial management	5 (4.3)	-	4 (3.4)	-	1 (0.9)	-	10 (2.9)	-
Organizing	Organizational culture	3 (2.6)	6 (5.1)	1 (0.9)	4 (3.4)	2 (0.6)	3 (2.7)	6 (1.7)	13 (3.8)
	Organizational design	1 (0.9)	-	2 (1.7)	-	1 (0.9)	-	4 (1.2)	-
	Job management	2 (1.7)	-	1 (0.9)	-	-	-	3 (0.9)	-
Staff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14 (12.0)	22 (18.8)	12 (10.3)	22 (18.8)	19 (17.1)	27 (24.3)	45 (13.0)	71 (20.6)
	Human resources maintenance	8 (6.8)	-	6 (5.1)	-	8 (7.2)	-	22 (6.4)	-
	Human resources recruit	-	-	4 (3.4)	-	-	-	4 (1.2)	-
Directing	Conflict management	4 (3.4)	27 (21.5)	1 (0.9)	26 (22.3)	3 (2.7)	25 (22.5)	8 (2.3)	78 (22.6)
	Empowerment	2 (1.7)	-	5 (4.3)	-	-	-	7 (2.0)	-
	Leadership	3 (2.6)	-	2 (1.7)	-	3 (0.9)	-	8 (2.3)	-
	Stress management	16 (13.6)	-	18 (15.4)	-	17 (15.3)	-	51 (14.8)	-
	Communication	2 (1.7)	-	-	-	2 (1.8)	-	4 (1.2)	-
Controlling	Productivity	22 (18.8)	35 (30.0)	12 (10.3)	31 (26.6)	15 (13.5)	35 (31.5)	49 (14.2)	101 (29.3)
	Quality management	13 (11.1)	-	19 (16.2)	-	20 (18.0)	-	52 (15.1)	-
Marketing	Internal marketing	1 (0.9)	1 (0.9)	-	2 (0.6)	2 (0.6)	2 (1.8)	3 (0.9)	5 (1.5)
	Negative oral transmission	-	-	1 (0.9)	-	-	-	1 (0.3)	-
	Inauguration	-	-	1 (0.9)	-	-	-	1 (0.3)	-
Nursing unit management	Nursing records management	1 (0.9)	6 (5.1)	2 (1.7)	4 (3.4)	-	3 (2.7)	3 (0.9)	13 (3.8)
	Nursing informatics system	1 (0.9)	-	1 (0.9)	-	1 (0.9)	-	3 (0.9)	-
	Environment management	3 (2.6)	-	-	-	1 (0.9)	-	4 (1.1)	-
	Management intervention	1 (0.9)	-	1 (0.9)	-	1 (0.9)	-	3 (0.9)	-
Nursing management education	Nursing education and outcome	-	5 (4.3)	4 (3.4)	15 (12.8)	3 (2.7)	7 (6.3)	7 (2.0)	27 (7.8)
	Management education and clinical training	-	-	5 (4.3)	-	3 (2.7)	-	8 (2.3)	-
	Nursing student adaptation and competence	5 (4.3)	-	6 (5.1)	-	1 (0.9)	-	12 (3.5)	-
Nursing management research	1 (0.9)	1 (0.9)	-	-	1 (0.9)	1 (0.9)	2 (0.6)	2 (0.6)	
Others	3 (2.6)	3 (2.6)	2 (1.7)	2 (1.7)	-	-	5 (1.4)	5 (1.4)	
Total		117 (34.1)		117 (34.1)		111 (32.3)		345 (100.0)	

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어 분석결과, 「직무만족」이 18건(13.6%), 「스트레스」16건(12.1%), 「조직몰입」13건(9.8%)의 순이었는데, 이는 2007~2009년까지 3년간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의 주요어 분석(Kim et al., 2010)에서는 「직무만족」31건(19.4%), 「조직몰입」18건(11.3%), 「직무 스트레스」10건(6.3%)의 순이었고, 2002~2006년까지 5년간 논문분석(Seomun & Koh, 2007)에서는 「직무만족」31건(9.5%), 「조직몰입」19건(5.8%), 「조직문화」18건(5.5%)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면, 「직무만족」이 간호행정학회지 창간 이후로 매 분석별 평

균 9.5~19.4%로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 「조직몰입」이 5.8~11.3% 사이였고, 그 외에 「이직」4.4~6.8%, 「간호업무성과」3.8~5.3%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도별 비교를 해 보면, 2010년에는 「경력관리」, 2011년에는 「간호교육」, 2012년에는 「안전」이 다빈도 주요어로 나타나 간호관리학 연구분야의 최근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최근 3년간 연구 주요어에서는 「안전」, 「간호교육」, 「소진」 등은 증가되었으나, 「간호서비스 만족」, 「간호윤리」, 「간호수가」의 경우는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향후에는 간호인력이나 간호수가 등 간호

정책 연구분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설계는 양적 연구가 123건(93.2%)로 대부분이었으며, 이 중 비실험연구가 112건(84.9%), 실험연구 11건(8.3%)였고, 질적 연구 9건(6.8%)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편, 2007~2009년까지의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에서는 양적 연구 94.5% (비실험연구 73.1%, 실험연구 6.2%), 질적 연구 5.5%, 프로그램개발 7.6%, 종설 6.9% 수준이었으며(Kim et al., 2010), 1995~2000년까지의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79.3%(비실험연구 73.1%, 실험연구 6.2%), 질적 연구 9.0%, 프로그램개발 7.6%, 문헌분석 6.9%로 나타났다(Koh & Ha, 2001). 이는 간호과학회지 2007~2008년까지의 논문이 실험연구 32.2%, 질적 연구 14.4%(Shin et al., 2010)와 비교하거나, 병원간호학회지 임상연구 1995~2008년까지의 논문이 실험연구 47.2%, 질적 연구 2.1%(Choe et al., 2010)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간호행정 및 관리분야의 연구설계 다양화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간호관리학 분야의 특성상 환자가 아닌 조직과 간호사가 주 대상이긴 하지만, 타 분야에 비해 실험연구와 질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조직의 시스템이나 운영전략, 근무환경, 관리행위나 변화 및 성과관리 등의 연구분야에서 방법론의 개발과 효과 평가 등에서 다양한 연구설계로 심층적인 연구결과의 획득과 축적이 강화되어야 한다.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에서 IRB 심의 절차를 밟아 연구수행의 허락을 받았다고 기술한 논문이 24건(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향후 IRB 심의율은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조사 시 표본조사에 있어 표본수 산출기준을 제시한 논문은 표본수 제시에 해당이 없는 18건(13.6%)을 제외하고 66건(50.0%)으로 나타났으며, 표본추출방법은 해당없는 2건(1.5%)을 제외하고 127건(96.2%)이 편의추출이었으며, 기타 전수조사 3건, 계층추출 2건, 단순임의추출 1건으로 나타났다. 표본수 산출기준 제시는 한국간호과학회지(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2004~2006년에 17%이고(Suh et al., 2007), 2007~2008년에 49.7%(Shin et al., 2010)가 표본수 심의 산출기준을 제시하였고, 기본간호학회지의 경우 2009~2011년까지의 논문에서 89건(62.2%)(Kim et al., 2012)으로 보고되고 있어 표본수 산출기준 제시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표본수 산정을 제시함에 있어 효과크기를 정하는 방법이 제시되거나 효과크기의 타당성이 제시되는 경우는 드물어 향후 학회지의 심사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질적

검토가 필요하며, 표본추출방법은 과거의 간호행정학회지 논문동향분석 사례가 없어 직접 비교는 어려웠다.

자료분석방법은 2 sample t-test 13.2%(7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사후 검정, 회귀분석, χ^2 -test 순이었으며, Path analysis와 Factor analysis가 각 6건, 8건씩(각 1.1%, 1.4%) 확인되고 있다. 이는 Kim 등(2010)의 2007~2009년까지의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의 자료분석방법에서 ANOVA 20.7%(104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13.9%(70건), t-test, 사후 검정, 회귀분석, χ^2 -test, paired t-test 순이었던 것과 비교 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2006년 이전의 간호행정학회지 분석논문들에서는(Seomun & Koh, 2007) 통계분석방법의 비교는 다루지 않아서 비교할 수는 없었다. 한편, 기본간호학회지 2009~2011년 논문에서 중복을 인정하며 t-test 73%, ANOVA와 회귀분석 46.1%, correlation 46.1%, χ^2 35.5%로 확인되며, Path analysis와 Factor analysis가 각 1건씩 0.7% 확인되고 있는 것과 비교 시 자료분석방법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Path analysis와 Factor analysis 등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료분석방법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연구세팅은 병원이 78.8%(104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교육기관 9.1%(12건), 지역사회(학교, 보건소 등) 7.6%(10건), 기관(예, 심평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단위는 개인차원이 90.1%(119건), 조직 5.3%(7건), 기타 3.8%(5건), 집단 0.8%(1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세팅이나 분석단위의 경우 간호행정학회지 2007~2009년, 2002~2006년, 1995~2000년까지의 논문분석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기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Kim et al., 2010; Koh & Ha, 2001; Seomun & Koh, 2007).

연구대상자는 간호사가 65.5%(8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 11.8%(16건), 병원이나 돌봄자 등 11.0%(15건), 간호학생 5.9%(8건), 문헌이나 연구보고서 4.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행정학회지 선행분석에서 연구대상자는 2007~2009년에는 간호사가 55.1%(92건), 문헌이나 연구보고서 13.8%(23건), 환자 10.2%(17건), 학생 9.6%(16건), 간호관리자 3.0%(5건), 의사 2.4%(4건) 순이었고(Kim et al., 2010), 2002~2006년에는 내부고객으로는 일반간호사와 수간호사가 가장 많았으며 외부고객의 경우 환자와 환자보호자가 많았고(Seomun & Koh, 2007), 1995~2000년에는 병원직원이 59.28%로서 이 중 간호사가 37.63%로 가장 높았으며, 수간호사 11.86%, 기타 의사 혹은 타직종 8.25%, nurse specia-

list 1.55%였으며, 이어서 환자, 간호학생 등 22.68% 순으로 확인(Koh & Ha, 2001)됨을 고려할 때, 간호관리 관련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관리자들이 간호부서나 간호병동에서 간호활동들을 기획, 조직, 인사, 지휘, 평가하는 과정(Swansburg, 1994)에 관한 연구대상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논문의 주요 연구변수를 간호관리과정과 전공 특성을 반영해 구분한 결과, 총 345개의 주요연구변수가 발췌되었다. 통계영역이 101건(29.3%)로 가장 많았고, 지휘영역이 78건(22.6%), 인적자원관리영역 71건(20.6%), 간호관리교육 관련 27건(7.8%), 전문직과 법적의무 관련 16건(4.6%), 기획영역 14건(4.0%), 조직영역 13건(3.8%), 간호단위관리 관련 13건(3.8%), 마케팅 관련 5건(1.5%), 간호관리연구 2건(0.6%), 기타 5건(1.4%) 순서로 나타났다. 2007~2009년까지의 간호행정학회지 논문의 주요어 160개의 분석결과, 지휘영역이 37.5%(6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적자원관리, 조직관리, 통계, 기획, 간호정보학, 윤리, 전문직관, 법적의무 순이었으며(Kim et al., 2010), 2002~2006년까지의 논문 주요어 327개의 분석결과에서는, 인사 및 지휘가 44%로 가장 높았으며, 통계 20%, 기획 및 조직 15%의 순이었고(Seomun & Koh, 2007), 1995~2000년까지의 주요어 348개 분석에서는 통계가 20.98%(73건)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지휘 19.54%(68건), 인적자원관리 16.09%(56건), 조직 7.76%(27건), 기타 6.61%(23건), 간호윤리 5.75%(20건), 간호단위관리 5.75%(20건) 등의 순이었다(Koh & Ha, 2001). 이 같은 비교결과, 통계와 지휘 영역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질의 인증과 효과적인 조직 및 직원관리에 있어 지휘운영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하면, 간호관리 연구주제 중 통계와 지휘영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전사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질 향상 활동, 성과와 연계된 지휘과정의 하위 주제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기획 영역과 조직화 기능에 관한 연구주제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부분은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접근성에 제한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기획기능과 조직화 기능에 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간호현장의 관리자와 함께 공동 혹은 협력 연구들이 강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간호관리과정의 관리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가 부족한 것도 향후 간호관리학 학문의 지식체 축적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측면이라고 본다.

결론

기존선행연구와의 연속선상에서 본 연구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간호행정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동향이 논문현황, 주요어, 연구설계, 연구대상자 및 연구 셋팅, 표본표출방법, 자료분석방법, 간호관리영역별 주요연구변수의 분류 측면에서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간호관리 연구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간호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한 실행 전략 마련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인력 및 간호수가 등 간호 정책 영역의 새로운 개념에 대한 관심과 간호정책 관련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둘째, IRB심의 강화, 표본수 산정에서의 효과크기의 타당성 제시 등 연구윤리 및 연구방법론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관리 영역의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의 실시를 제언한다.

REFERENCES

- Bang, K. S., Lee, S. O., Park, Y. I., Jun, M. H., Kim, H. S., Son, H. M., et al. (2008). Analysis of published papers and their keywords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7.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4, 244-251.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2.244>
- Choe, M. A., Jeong, J. S., Lim, K. C., Kim, J. H., Kim, K. S., Kwon, J. S., et al. (2010). Research trend of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5-2008.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6, 95-105.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et al. (2000). The trend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 1207-1218.
- Jang, S. O. (2005).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by the classification of knowing in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206-212.
- Jeong, G. H.,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 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420-1425.
- Kang, H. C. (2002). Analysis of statistical method appli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929-935.

- Kim, J. K., Jung, M. S., Jang, K. S., Kim, J. Y., Lee, H. J., Kim, E. K., et al. (2010).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for 3 years(2007-2009).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 517-526.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4.517>
- Kim, K. H., Chang, S. O., Kang, H. S., Kim, K. S., Kim, J. I., Kim, H., et al. (2012). Trends in research studies publishe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2009-2011. *Journal of Korean Academy Fundamentals of Nursing*, 19, 383-391. <http://dx.doi.org/10.7739/jkafn.2012.19.3.383>
- Kim, S. J., Kim, K. B., Yi, M. S., Lee, K. J., Ahn, Y. H., Kim, H. S., et al. (2002).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s of seven branches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 114-130.
- Koh, M. S., & Ha, N. S. (2001). Review of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and its research tren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7, 561-569.
- Lee, E. O., Lee, E. J., Lee, E. H., Chun, K. Z., Kim, J. H., Park, C. S., et al. (1992). Analysis of studies of anxiety and stress conducted in Korea from 1970 to 1990.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2, 271-296.
- Lee, M. H., Sohn, J. N., Won, C. S., Chung, M. S., Hyun, M. S., Han, K. S., et al. (2007). Trend of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by analysis of the published paper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On papers from 1992 to 2006.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16, 295-307.
- Marriner-Tomey, A. (2009). *Nursing management and leadership* (8th ed). Missouri: Elsevier.
- Seomun, G. A., & Koh, M. S. (2007). Academic value and outcome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546-552.
- Seomun, G. A., Koh, M. S., & Kim, I. A. (2007). Classification of keywords of the papers fro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2002-200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 118-122.
- Shin, H. S., Hyun, M. S., Ku, M. O., Cho, M. O., Kim, S. Y., Jeong, J. S., et al. (2010).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ed on research trends, intervention studies, and level of evidence in the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139-149. <http://dx.doi.org/10.4040/jkan.2010.40.1.139>
- Suh, Y. O., Park, J. S., Yang, J. H., Kim, H. W., Suk, M. H., Shin, H. S., et al. (2007).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7, 1013-1019.
- Swansburg, R. C. (1993). *Introductory management and leadership for clinical nurses: A text-workbook*. Boston: Jones and Barlett Publishers.